

나뚜라라 프로그램소 마을에 2019 년 꽃이 활짝.



주사랑교회는 4 년전 넓은 바다를 향해 출항 했습니다. 첫 출항, 모두가 향해 경험이 없거나 아주 부족합니다. 따라서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배안에서는 1-2년 큰 탈 없이 순항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문제였습니다. 늘 예고 없는 폭풍이 바다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간의 축적된 경험으로 바다도 안다 했는데 난데

없는 큰 폭풍이 3 주년 당일 오후, 거세게 불었고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런 큰 폭풍은 예상 못한터라 항해사와 모든 승무원 들은 한 동안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곧 걷혔고 항해사는 다시 일어나 키를 잡았으나 승무원들의 혼란이 심했던 나머지 점검과 회복, 수리를 하는 것만도 대략 300 일이 소요됐습니다. 이제 바다도 "주사랑" 배도 안도하며 순항 중 입니다. "주사랑(교회)"배의 항해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가 항해의 큰 힘입니다. 살롬!!!

주 사랑 교회의 놀라운 이야기...

100 세를 향한 믿음의 발 걸음- 주머니 속의 전화가 진동하여 빼어보니... 낯선 전화 번호였고 나뚜라 마을 방문을 문의하셨습니다. 일정은 1 박 2 일, 그런데 참여자 분들의 연령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100 세 고지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육상로를 통해 국경을 넘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받아야 하나, 어떤 사역을 하지... 저 스스로 묻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여 어머니 마음으로 보답아 주고 축복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거동도 어려워 보이는 분들을 모시고 오신 목사님과 그나마 젊으신 6-70 대 권사님들이 술선수범 도우미가 되어 주셨고, 주 사랑교회 청년들도 손을 보태며 아름다움 동역과 사역이 되었습니다. 위로의 날이요, 주안에서 모두 됩니다.

주 사랑교회의 오늘과 미래를 향한 출발~ ~

주사랑교회 4 주년 예배와 집사 안수식, 침례식 - 교회는 가족이다라는 구호와 함께합니다. 가족안의 다툼이나 미움등이 되어 나오지만 한자리에 모여 다시금 회개하고 예배하며 용서와 회복이 이뤄집니다. 늘 반복되는 잘못들과 뒤엎겨 사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부릅니다. 성도들이 성화와 성숙을 향해 나아갑니다. 뻣뻣한 생활 가운데 성경공부를 하고 시간과 삶을 헌신합니다. 타인을 위한, 사역을 위한 마음과 생각이 삶을 채워갑니다. 연소하지만, 못 배웠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같았습니다.

삶의 무게는 더없이 무겁게 느끼고, 사고는 복잡해 진 것 같으나 마음 안에 소망은 새 힘을 줍니다.

나뚜라와 프로그레소 마을: 1 회 여름 성경학교- 완벽하지 않아 안될 것만 같은 여름 성경학교가 작은 손길에 빛을 바랬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교회자체 적으로 실시한 성경학교, 최소의 재정과 성도가 조금씩 제공한 현금 그리고 후원 물품을 팔아 마련한 재정으로 아이들에게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배가 부르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행복한 시간과 나눔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욥 8: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전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 **아멘 아멘 입니다.**

기도제목

1. 아내의 흑 제거 수술과 회복을 위해(8 월 27 일)
2. 5 명의 안수집사들과 선생님들의 신앙과 삶이 성장하도록
3. 교회 이전할 부지와 구입 비용이 채워지도록



IAJC | 주사랑교회

Desarrollo Natura

Aguila Real 1 #49,

Tijuana. B.C. Mexico

619-417-8901 | 52)664-394-

5763



Iglesia Amor de JesuCristo